

# 스타강사 특별초청 인문학 강연

순창군립도서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삶의 기술을 위한 인문학' 주제 10회 진행

순창군립도서관이 다목적홀 증축을 기념해 31일부터 10회 연속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순창군립도서관 2층 다목적홀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삶의 기술을 위한 인문학'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사회의 흐름을 진단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JTBC, EBS 출연하여 많은 울림을 줬던 스타강사를 특별 초청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일상화된 전염병의 위협과 점점 가속화되는 기술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미래 기술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세계화, 도시화 및 기후변화에 따라 팬데믹은 더 빈번해 질 것이고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코로나19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 인공지능, 로봇, 자율 주행 자동차, 온라인 교육, 사이버 스페이스, 언택트가 빨리 이루어지고 일상에 더 깊이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인류의 미래는 일상화된 전염병의 위협과 4차 산업혁명의 두 축 위에서 펼쳐질 것이다.

코로나19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했고, 사람들 간의 관계망 속에서 함께 연대하며 성찰과 희망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밑바탕에 자리잡은 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이를 위해 순창군립도서관은 각계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초청해 코로나19 사태로 급변하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번 강연회의 첫 번째 주자는 강원국 전(前)대통령연설비서관으로 소통을 주제로 한다. 이후 면역에 대해 안광석 서울대 교수, 미래의 교육은 김누리 중앙대 교수, 기후 위기와 극복을 주제로 조천호 국립기상과학원 초대원장, SF와 우주이야기는 이명현 세티(SETI)연구소 한국 책임자가 강연한다.

이 밖에 문학 김선우 시인, 인공지능 박재용 과학커뮤니케이터, 미래기술 전승민 강연가, 여행 심미식 사진작가가 강연에 참여한다.

강연은 순창군립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진행하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순창군립도서관이 다목적홀 증축을 기념해 31일부터 10회 연속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63-650-5678)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문체부, 올해 우수문화상품 6개 분야 57점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우수문화상품으로 공예, 디자인상품, 한복, 문화콘텐츠, 식품, 한식 등 6개 분야 총 57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가치가 담긴 우수상품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476점이 접수됐으며 각 지정 분야

전문가들이 원료, 제조기술, 상품성 등 상품의 품질과 시장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상품의 이야기, 생산철화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공예 분야에서는 이인화의 '소만 커피도구' 등 14점, 디자인상품 분야에서는 지희승스튜디오의 '전통책 만들기 꾸러미' 등 6점, 한복 분야에서는 늘사람의 '가을달빛원피스' 등 20점

이 선정됐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주)그래피즈의 '허풍선이 쇼' 등 4점, 식품 분야에서는 교동씨엠의 '오죽현' 등 12점, 한식 분야에서는 삼대인 천계장의 '일품계 알배기 간장계장 정식' 1점 등이 있다.

그동안 선정된 우수문화상품의 목록은 대표 누리집과 분야별 대형 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 "글로벌 꿈꾸는 게임 중소기업·예비창업팀 모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 하반기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와 게임벤처4.0 신규·예비 창업팀을 총 30곳 내외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는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기업성장센터 8~9층에 위치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부터 창업 1년 미만의 개발사, 예비 창업자까지 역량을 갖춘 게임개발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공간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는 국내 중소기업업을 대상으로 총 13곳 내외를 모집한다. 최소 상주 근무인력에 따라 대형(154.3㎡), 중형(77.9~101.4㎡), 소형(35.6~49.4㎡) 등 다양한 크기의 독립된 사무공간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콘텐츠진흥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관리비 50%를 지원하는 등 입주사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선정된 입주사들은 게임개발을 위한 ▲모

바일·VR게임 테스트베드 최신 장비 및 시설 활용 ▲게임 심화 QA 및 컨설팅 지원 ▲게임 개발용 SW 및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경영·법률 컨설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 참가 ▲수출상담 프로그램 및 채용 연계 지원 ▲글로벌 동향정보 접근 ▲신용보증기금 게임콘텐츠 금융 상담컨설팅 등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창업 1년 미만의 신규 개발사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게임벤처4.0'은 총 17개사 규모로 모집한다. 입주비용 전액 지원을 받아 공동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입주사와 동일한 시설 및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하반기 입주를 원하는 기업과 예비 창업자는 다음달 24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입주 기간은 입주사의 경우 최대 3년, 게임벤처4.0은 최대 2년이다. /뉴시스

## 전북문화관광재단 노동조합 출범

최남신 위원장 "재단 정상화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출범하게 된 것"

전북문화관광재단 노동조합(위원장 최남신)이 지난 16일 출범했다.

재단 노조는 설립 총회를 열어 임원진 선출과 규약 제정 등을 마치고, 24일 전주시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전했다.

재단 노조 출범 이전에는 노사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법이 보장하는 교섭권이 없는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였던 탓에 구성원들의 자각이나 사측의 강압적 행태에 대항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이에 따르면 약화일로로 치달고 있는 재단의 총체적 부실 운영은 노조 설립 필요성에 관한 구성원들의 자각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6년 공식 출범한 이후 재단 운영 전반에 관한 언론과 도의회 등 외부의 지적이 있었지만, 현 대

표이사 취임 이후 부실 운영에 가속도가 붙음으로써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구성원들 사이에 싹트게 됐다.

이에 관해 재단 노조 최남신 위원장은 "현재 재단의 속살은 굼뎠다. 굼뎠은 자정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면서 "방향을 상실한 재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서 노조가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노조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재단 노조는 30일 재단에 노조설립 사실을 통보하고, 이른 시일 내 첫 번째 단체교섭을 진행해 재단 정상화를 위한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부안군문화재단, 10월 정식 출범

(재)부안군문화재단은 권익현 부안군수의 지시사항으로 2020년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라북도로부터 부안군문화재단 설립 승인을 받고 조례 및 정관제정과 재단임원을 구성하여 지난 5월 20일 재단법인 부안군문화재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마쳤다.

(재)부안군문화재단 직원은 공개 채용 모집으로 사무국장, 시설팀장, 직원 2명을 최종 선발하여 오는 9월 8일 임용장을 수여할 예정이

며, 10월 초 정식 출범예정이다.

(재)부안군문화재단은 석정문화관에 사무국을 두며 출범 초기에는 재단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군청 공무원을 파견 지원하는 행정으로 조기에 본 관내에 오르도록 지원 운영한다.

(재)부안군문화재단은 부안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사업의 개발 및 석정문화관을 비롯한 생활문화센터, 역사문화관 관리운영과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활동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